

The effect of youth leisure activity type on self-esteem, of middle school student in Yanbian, China

Jung, Chul Sang

Professor, Department of Youth Culture & Counseling, Hoseo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ity types on self-esteem among Chinese adolescents, and to develop a customized leisure activity program to improve self-esteem and the importance of leisure activities through leisure activities of Chinese adolescents. We intend to provide basic data and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as suggesting its importance.

Methodology: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youths in China, and data from 365 people were used f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rossover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Finding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adolescents and the type of leisure activity and self-esteem, the correlations between all major variables were significant. Second, in the effe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leisure activities on self-esteem,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was 4 or les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participation time of less than 12 hours were generally high. Third, as a result of cross-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leisure activitie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hobby culture in common.

Conclus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leisure activity type of Chinese adolescents is an important variable affecting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Korean adolescents. This verifies the importance of cultivating leisure activities in improving the self-esteem of Korean and Chinese adolescents, suggest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 leisure activity program for Chinese adolescents, and provides basic data and information.

Keywords: Chinese youth, leisure activities Type, self-esteem

Corresponding Author: Jung, Chul sang

Director, Professor, Department of Youth Culture & Counseling, Hoseo University.

This thesis is a research conducted with academic research grant support from Hoseo University in 2022 (202202340001).

ORCID: <http://orcid.org/0000-0003-3192-3361>

Email: campkorea@hanmail.net

Received: August, 31, 2022 Revised: September, 29, 2022 Accepted: September, 30, 2022 Publication: September, 30, 2022

중국연변지역 중학생의 여가활동 유형에 대한 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유형의 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중국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통해서 여가활동 함양의 중요성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의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의 중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초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이를 위해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6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청소년의 일반적특성, 여가활동 유형이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분석결과 모든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참여횟수는 4회 이하, 자발적참여, 12시간 미만의 참여시간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여가활동유형은 공통적으로 스포츠 부분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취미교양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한국 청소년 대상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 중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여가활동 함양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중국 청소년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의 중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초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중국 청소년, 여가활동유형, 자아존중감

교신저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이 논문은 2022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202340001)

ORCID: <http://orcid.org/0000-0003-3192-3361>

Email: campkorea@hanmail.net

투고일: 2022. 8. 31. 심사일: 2022. 9. 29. 게재확정일: 2022. 9. 29. 발행일: 2022. 9. 30.

I. 서론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은 고용시장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삶의 패턴 및 생활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적응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1].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신체적 성숙이 활발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기이다. 이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업수행 능력과 목표 달성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로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갖기에 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Erikson(1968)은 청소년 시기는 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 경험으로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 그리고 가정 구성원 이외의 다양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자기표현능력, 사회화의 기술 습득, 지식습득 등을 통해 성취감을 갖는 시기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대학입시 경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교우관계에서 적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사와의 인간적 접촉의 감소로 청소년의 심리적 압박감과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3].

청소년들의 입시에 대한 압박감은 우리나라 이외에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최근 입시위주 교육으로 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상승하고 있기에 청소년들의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가중되어 있다. 이에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 및 갈등의 심리적 문제를 보이며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발전의 속도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속도와 불일치하거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개인 가치관, 생활양식, 인간관계 등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청소년의 가치관과 내면적 혼란을 야기하기에 중국 청소년의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 및 갈등, 청소년 범죄 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4].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청소년의 다양한 청소년 문제 중 학업스트레스, 진로문제, 심리적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는 심리 문제 뿐만 아니라 신체 발달과 낮은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은 청소년 발달과정을 완수하기 위한 직업 및 진로, 행동 문제 등을 경험하면서 높은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미숙하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이에 4차 산업시대와 첨단 기술발전으로 인터넷 사용 증가 자동화, 미디어의 발전 등은 여가 시간 활용과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줄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감소에 도움을 줄 뿐 낮은 자존감을 향상 시키거나 효율적인 여가활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에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높은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3].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고[1][5], 이와 관련된 변인으로 여가활동이 있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자신의 상황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대처하여 삶의 활력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5]는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삶의 활력과 삶의 질 향상,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여가(Leisure)는 자유 시간, 의무적인 시간 이외의 임의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에서 연구자[5]들은 건전한 여가활동은 개인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심신을 안전화 하기에 삶의 질 향상과 보람을 갖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과정에서 상호 긍정적 관계형성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기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모하고 삶의 활력을 제공한다[1][3].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기본법」 제 3조 3항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의 목적은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단순한 활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스스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은 기분전환과 욕구불만 및 해소에 효과적이므로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인이며,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기회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된다[6]. 이외에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여가문화활동[7]과 여가경험이 있는 청소년이[8]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활동 유형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5].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스스로 조절하여 사회화 과정에서 자기조절능력을 배우고 자아존중감과 건강한 심리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질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여가활동을 통해 흥미를 찾게 되면서 취미 및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무엇보다 나는 누구인가?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수용하는 것은 청소년시기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는 청소년 시기의 방향 또한 예방할 수 있다[7][8]. 또한 성인이 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시기는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탐색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혼란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9].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변인의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국적은 다르지만 중국 청소년들이 청소년 여가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갖추어야 할 인성, 행복감,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적 역할과 여가활동을 통한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청소년 시기의 경험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청소년의 여가활동유형이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순기능적 역할을 하며, 특히 여가활동 유형

중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건전하고, 긍정적인 여가활동의 방향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중국 청소년 대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여가활동유형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 사용 및 효과적인 여가문화 형성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극복 및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맞춤형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 여가활동특성,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중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중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교차분석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여가활동

여가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감소, 에너지를 충전하여 자아를 완성하고 가치 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가는 창의적이고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여가는 단순히 휴식의 개념이 아닌 개인의 성장에 발전적, 사회적 성장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역량을 기르고 사회화 과정을 촉진하여 자아정체감 및 행복감을 향상 시키고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8]. 이외에도 인간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가는 한정된 틀과 반복적인 일의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 자유로운 기분전환을 제공하기에 문제해결의 자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6]. 이는 창조적 태도 형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0]에서도 여가활동은 심리적 어려움으로 새로운 문화 습득과 학업목표 달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식사, 일, 공부, 수면 등으로 인한 기분전환 및 피로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여가시간의 활용은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감소하므로 자유로운 사회활동 참여로 이끌어 자아의식, 정체감 형성으로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준다[6]. 더불어 활동과정에서 다양한 청소년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사회화, 소속감, 연대감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은 학자마다 정의, 활동내용과 분류기준이 다르다. 먼저 kapland(1960)은 여가활동의 가치가 어떠한가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였다[11]. 둘째, Mckenchnine(1974)는 지적, 조작적, 공작적, 스포츠 활동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12]. 지적활동은 청소년의 지적육구 충족을 위한 활동으로 영화감상, 독서, 음악감상 등이다. 조작적 활동은 주로 도구를 활용하는 활동으로 예로 당구, 자동차 수리 등의 활동이다. 공작적 활동은 재료를 활용한 활동으로 의류 디자인, 뜨개질, 요리 등의 활동이다.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의 활발한 신체활동을 위한 것으로 등산, 야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스키 등의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Mckenchnine(1974)은 청소년의 인내심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Ragheb(1980)은 야외, 스포츠, 사교, 취미, 문화, 대중매체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코로나 19이후 점차 청소년의 야외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지면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신체적 움직임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하이킹, 걷기, 숲체험 활동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3]. 스포츠 활동은 야구, 농구, 축구 등이며, 사교활동은 보드게임, 파티, 문화활동은 연주회, 박물관 견학, 무용, 취미활동은 수집, 그림그리기, 만들기 등이 포함된다. 넷째 Campbell(1976)은 여가활동 유형을 스포츠 활동, 생산적-지적, 문화적-소극적으로 분류하면서 스포츠 활동으로는 야구, 농구, 테니스, 축구 등으로 활발한 신체활동이다. 생산적-지적활동은 요리, 장기, 뜨개질, 그림 등 청소년의 기존 지식을 활용한 생산활동이다[14].

살펴본 바와 같이 여가는 시간과 관련성이 높으며, 인간의 육구 충족을 위한 방법으로 자발적인 참여로 자기개발 및 자아실현이 가능한 활동이다.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균형적인 심신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을 함양하고 인간관계 형성을 도모한다. 개인의 취미와 오락을 행하는 사회적 교류 확장을 넓힐 수 있는 청소년여가활동의 경험은 미래인재 양성의 중요한 활동으로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활동으로 능동적 삶을 이끄는 데 영향을 준다[6][10]. 이외에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유능감을 가치 있게 판단하는 것으로 긍정적, 부정적 평가로 나타나며, 자신의 평가는 자신 내적인 잠재능력을 실제 얼마나 느끼는지 성취비율로 결정된다고 하였다[15].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 자아실현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도 영향을 주기에 청소년시기 자아 형성과 발달에도 관련성이 높다. Rosenber(1979)는 자아존중감 형성의 요인으로 귀인, 사회적 비교와 평가, 심리적으로인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안정감, 자신감, 가치감을 형성하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하였다[16]. 귀인

은 성공여부를 자신의 내적, 외적 요인에서 찾는 것으로 성공원인을 긍정적 내적 원인으로 찾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으나 실패의 원인을 부정적 내적 귀인으로 찾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사회적 비교와 평가는 사회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타인과 비교하거나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되는 것이다. 심리적 요인은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개인의 인지적 구조에 따라 자아존중감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스스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하였다.

홍나미(2015)는 청소년의 자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자아존중의 정도 수준과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에서 과업 수행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였다[17]. 더불어 개인의 발달단계 과정에서 자신의 인식에 달라지는 것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른 평가로 그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신의 평가를 하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으며, 반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다

즉 청소년 여가활동경험은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더불어 긍정적 자기인식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여가활동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관계를 검증하고자 청소년 4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2022년 3월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 진행하였다.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자 35명을 제외하고 총 36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186명(51.0%)과 여성 179명(49.0%)이고, 학년은 1학년이 90명(24.7%), 2학년이 160명(43.8%), 3학년115명(31.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가활동에 참여한 횟수는 1~2회가 196명(53.7%), 3-4회 120명(32.9%), 4-5회 26명(7.12%), 5-6회 12명(3.27%), 7회 이상 11명(3.01%)으로 1~2회가 가장 많았다. 여가활동에 참여 방식은 타인의 권유로 참여하는 학생은 135명(36.9%)이며, 자발적 참여하는 학생은 230명(63.1%)이다. 그리고 일주일 여가활동 유형에 참여한 평균 시간은 놀이오락 부분 참여 시간은 1-6시간 123명(33.6%), 6-12시간 145명(39.8%), 12-18시간 82명(22.5%), 18시간 이상 15명(4.1%)이었고, 스포츠 부분 참여시간은 1-6시간

109명(29.9%), 6-12시간 206명(56.4%), 12-18시간 37명(10.14%), 18시간 이상 13명(3.56%)이었다. 취미교양 부분에 참여 시간은 1-6시간 115명(31.5%), 6-12시간 182명(49.9%), 12-18시간 63명(17.3%), 18시간 이상 5명(1.3%)이었으며, 관람감상 부분 참여시간은 1-6시간 109명(29.9%), 6-12시간 177명(48.5%), 12-18시간 72명(19.7%), 18시간 이상 7명(1.9%)이다.

2. 측정도구

가. 여가활동유형

중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김수진(2015)[1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4개의 유형으로 스포츠, 놀이오락(예: 당구, 노래방, 바둑, 보드게임, PC방, 오락실, 만화, 장기), 관람감상(예: 음악, 미술, 영화, 스포츠, 박물관, TV 시청, 라디오 청취 등), 취미교양(예: 독서, 수집활동, 공예, 채집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유형의 세부활동을 제시하였으며, 일주일 동안 여가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참여한 응답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희화(1998)[19]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가정자아(4문항), 성격적 자아(5문항), 학업 및 전반적 자아(7문항), 친구관련자아(5문항), 신체외모자아(6문항), 교사관련자아(5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가정자아 .91, 성격적 자아 .91, 학업 및 전반적 자아 .89, 친구관련자아 .91, 신체외모자아 .86, 교사관련자아 .90이며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3.0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중국연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년, 여가활동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중국연변 청소년의 여가활동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

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중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여가활동 특성,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VI-1>와 같다. 전체적으로 모든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년, 일주일 참여횟수, 여가활동권유는 여가활동 특성, 자아존중감에 대부분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특히 남성, 학년이 높을수록, 일

<표 VI-1>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283**	1												
3	.777**	-.288**	1											
4	.135*	-.106*	.207**	1										
5	.140**	.003	.138**	.319**	1									
6	-.064	-.063	-.093	.179**	.228**	1								
7	.030	-.108*	-.079	.148**	.283**	.280**	1							
8	.161**	-.190**	.099	.179**	.354**	.235**	.625**	1						
9	-.338**	.112*	.364**	-.434**	-.571**	-.147**	-.235**	-.391**	1					
10	-.231**	.047	.249**	-.366**	-.538**	-.176**	-.304**	-.433**	.745**	1				
11	-.134*	.033	.161**	-.413**	-.509**	-.262**	-.411**	-.444**	.535**	.601**	1			
12	-.165**	.057	.147**	-.444**	-.462**	-.359**	-.474**	-.486**	.583**	.591**	.665**	1		
13	-.147**	.041	.122*	-.373**	-.639**	-.300**	-.441**	-.558**	.616**	.617**	.609**	.590**	1	
14	-.242**	.176**	.226**	-.576**	-.505**	-.344**	-.446**	-.479**	.678**	.660**	.646**	.778**	.614**	1

일반적 특성: 1. 성별(0=남성, 1=여성), 2. 학년, 3. 일주일참여횟수, 4. 여가활동권유(0=자발적 참여, 1=타인의 권유), 여가활동유형: 5. 스포츠 부분, 6. 놀이오락 부분, 7. 관람감상 부분, 8. 취미교양 부분
자아존중감: 9. 학업 및 전반적 자아, 10. 가정자아, 11. 친구관련 자아, 12. 성격적 자아, 13. 신체외모 자아, 14. 교사관련 자아

*** $p < .001$, ** $p < .01$, * $p < .05$

주일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자발적 여가활동참여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여가활동의 유형에서 유형별 여가활동 특성은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유형별 여가활동 특성에 대하여 12시간 이상의 많은 시간보다는 12시간 미만의 시간을 참여 할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중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 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중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학업 및 전반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I-2>와 같다. 분석 결과, 일주일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횟수($\beta=-.177$, $t=-2.817$, $p<.01$)는 4회 이하일수록 학업 및 전반적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유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beta=-.229$, $t=-5.551$, $p<.001$)에 학업 및 전반적 자아가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유형 중에서는 스포츠 부분($\beta=-.398$, $t=-9.230$, $p<.001$)과 취미 교양 부분($\beta=-.194$, $t=-3.799$, $p<.001$)에 참여하는 시간이 12시간 미만일 학업 및 전반적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I-3>와 같다. 일주일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횟수($\beta=-.143$, $t=-2.116$, $p<.05$)는 4회 미만일수록 가정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유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β

<표 VI-2> 중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이 학업 및 전반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공선성 통계량	
		B	S.E	β	t	공차	VIF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상수	5.951	.188	-	31.715***	-	-
	성별	-.139	.095	-.090	-1.467	.382	2.614
	학년	-.023	.042	-.022	-.553	.866	1.155
	일주일참여횟수	-.143	.051	-.177	-2.817**	.362	2.761
	여가활동권유	-.368	.066	-.229	-5.551***	.844	1.184
	스포츠부분	-.421	.046	-.398	-9.230***	.771	1.297
	놀이오락부분	.001	.037	.001	0.036	.866	1.154
	관람감상부분	.019	.052	.019	0.373	.565	1.771
	취미교양부분	-.204	.054	-.194	-3.799***	.549	1.822

$R^2=.490$, $\Delta R^2=.478$, $F=42.731$ ***

*** $p<.001$, ** $p<.01$, * $p<.05$

=-.174, $t=-3.939$, $p<.001$)에 가정자아가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유형 중에서는 스포츠 부분($\beta=-.358$, $t=-7.754$, $p<.001$)과 취미교양 부분($\beta=-.242$, $t=-4.412$, $p<.001$)에 참여하는 시간이 12시간 미만일 학업 및 전반적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VI-3〉 중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이 가정자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공선성 통계량	
	독립변인	B	S.E	β	t	공차	VIF	
가정자아	상수	5.940	.195	-	30.535***	-	-	
	성별	-.041	.098	-.028	-.419	.382	2.614	
	학년	-.070	.043	-.070	-1.616	.866	1.155	
	일주일참여횟수	-.111	.053	-.143	-2.116*	.362	2.761	
	여가활동권유	-.271	.069	-.174	-3.939***	.844	1.184	
	스포츠부분	-.367	.047	-.358	-7.754***	.771	1.297	
	놀이오락부분	-.013	.038	-.015	-.340	.866	1.154	
	관람감상부분	-.040	.054	-.040	-.745	.565	1.771	
	취미교양부분	-.246	.056	-.242	-4.412***	.549	1.822	

$R^2=.414$, $\Delta R^2=.401$, $F=31.454$ ***

*** $p<.001$, ** $p<.01$, * $p<.05$

〈표 VI-4〉 중국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이 친구자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공선성 통계량	
	독립변인	B	S.E	β	t	공차	VIF	
친구관련 자아	상수	5.636	.143	-	39.425***	-	-	
	성별	-.070	.072	-.063	-.972	.382	2.614	
	학년	-.044	.032	-.060	-1.386	.866	1.155	
	일주일참여횟수	.106	.049	.126	2.206*	.362	2.761	
	여가활동권유	-.291	.050	-.252	-5.762***	.844	1.184	
	스포츠부분	-.227	.035	-.298	-6.517***	.771	1.297	
	놀이오락부분	-.044	.028	-.067	-1.560	.866	1.154	
	관람감상부분	-.119	.040	-.160	-2.999**	.565	1.771	
	취미교양부분	-.136	.041	-.181	-3.329**	.549	1.822	

$R^2=.424$, $\Delta R^2=.411$, $F=32.785$ ***

*** $p<.001$, ** $p<.01$, * $p<.05$

다음으로, 친구관련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I-4>와 같다.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횟수($\beta=.126, t=2.206, p<.05$)는 4회 미만일수록 가정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유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beta=-.252, t=-5.762, p<.001$)에 친구관련 자아가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유형 중에서는 스포츠 부분($\beta=-.298, t=-6.517, p<.001$)과 관람감상 부분($\beta=-.160, t=-2.999, p<.01$)과 취미교양 부분($\beta=-.181, t=-3.329, p<.01$)에 참여하는 시간이 12시간 미만일 학업 및 전반적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격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I-5>와 같다. 일주일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횟수($\beta=.122, t=2.276, p<.05$)는 4회 미만일수록 성격적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유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beta=-.273, t=-6.591, p<.001$)에 성격적 자아가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 시간은 모든 여가활동 유형에서 성격적 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스포츠 부분($\beta=-.189, t=-4.360, p<.001$), 놀이오락 부분($\beta=-.172, t=-4.207, p<.001$), 관람감상 부분($\beta=-.226, t=-4.449, p<.001$), 취미교양 부분($\beta=-.189, t=-3.675, p<.001$)에 참여하는 시간이 12시간 미만에서 성격적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외모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I-6>와 같다. 일주일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횟수($\beta=.130, t=2.106, p<.05$)는 4회 미만일수록 신체외모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유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표 VI-5> 중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이 성격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공선성 통계량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공차	VIF
	상수	5.762	.153	-	37.618***	-	-
	성별	-.058	.077	-.046	-.751	.382	2.614
	학년	-.062	.034	-.074	-1.810	.866	1.155
	일주일참여횟수	.085	.331	.122	2.276*	.362	2.761
성격적 자아	여가활동권유	-.356	.054	-.273	-6.591***	.844	1.184
	스포츠부분	-.162	.037	-.189	-4.360***	.771	1.297
	놀이오락부분	-.127	.030	-.172	-4.207***	.866	1.154
	관람감상부분	-.189	.042	-.226	-4.449***	.565	1.771
	취미교양부분	-.161	.044	-.189	-3.675***	.549	1.822

$R^2=.483, \Delta R^2=.471, F=41.496***$

*** $p<.001, **p<.01, *p<.05$

($\beta=-.158$, $t=-4.196$, $p<.001$)에 신체외모 자아가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 시간은 관람감상 부분을 제외한 여가활동 유형에서 신체외모 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스포츠 부분($\beta=-.434$, $t=-11.005$, $p<.001$), 놀이오락 부분($\beta=-.082$, $t=-2.193$, $p<.05$), 취미교양 부분($\beta=-.313$, $t=-6.679$, $p<.001$)에 참여하는 시간이 12시간 미만에서 신체외모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I-6〉 중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이 신체외모 자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공선성 통계량	
		B	S.E	β	t	공차	VIF
신체외모 자아	상수	5.841	.124	-	47.223***	-	-
	성별	-.078	.062	-.070	-1.246	.382	2.614
	학년	-.040	.028	-.053	-1.432	.866	1.155
	일주일참여횟수	.107	.051	.130	2.106*	.362	2.761
	여가활동권유	-.183	.044	-.158	-4.196***	.844	1.184
	스포츠부분	-.331	.030	-.434	-11.005***	.771	1.297
	놀이오락부분	-.053	.024	-.082	-2.193*	.866	1.154
	관람감상부분	-.057	.034	-.076	-1.651	.565	1.771
	취미교양부분	-.236	.035	-.313	-6.679***	.549	1.822

$R^2=.572$, $\Delta R^2=.563$, $F=59.518***$

*** $p<.001$, ** $p<.01$, * $p<.05$

교사관련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I-7>와 같다. 일주일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횟수($\beta=.159$, $t=2.403$, $p<.05$)는 4회 미만일수록 교사관련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유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beta=-.400$, $t=-10.770$, $p<.001$)에 교사관련 자아가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 시간은 모든 여가활동 유형에서 교사관련 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스포츠 부분($\beta=-.220$, $t=-5.647$, $p<.001$), 놀이오락 부분($\beta=-.141$, $t=-3.847$, $p<.001$), 관람감상 부분($\beta=-.185$, $t=-4.064$, $p<.001$), 취미교양 부분($\beta=-.154$, $t=-3.350$, $p<.01$)에 참여하는 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 교사관련 자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I-8>와 같다. 일주일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횟수($\beta=.117$, $t=2.349$, $p<.05$)는 4회 미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유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beta=-.297$,

〈표 VI-7〉 중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이 교사관련 자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공선성 통계량	
	독립변인	B	S.E	β	공차		VIF	
교사관련 자아	상수	5.875	.147	-		39.847***	-	-
	성별	-.126	.074	-.094		-1.698	.382	2.614
	학년	.033	.033	.037		1.016	.866	1.155
	일주일참여횟수	.132	.056	.159		2.403*	.362	2.761
	여가활동권유	-.561	.052	-.400		-10.770***	.844	1.184
	스포츠부분	-.202	.036	-.220		-5.647***	.771	1.297
	놀이오락부분	-.112	.029	-.141		-3.847***	.866	1.154
	관람감상부분	-.166	.041	-.185		-4.064***	.565	1.771
	취미교양부분	-.141	.042	-.154		-3.350**	.549	1.822

R²=.585, Δ R²=.575, F=62.659***

***p<.001, **p<.01, *p<.05

〈표 VI-8〉 자아존중감 전체에 미치는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공선성 통계량	
	독립변인	B	S.E	β	공차		VIF	
교사관련 자아	상수	5.834	.109	-		53.474***	-	-
	성별	-.085	.055	-.078		-1.551	.382	2.614
	학년	-.034	.024	-.047		-1.406	.866	1.155
	일주일참여횟수	-.048	.030	-.083		-1.608	.362	2.761
	여가활동권유	-.338	.039	-.297		-8.781***	.844	1.184
	스포츠부분	-.285	.027	-.380		-10.745***	.771	1.297
	놀이오락부분	-.058	.022	-.090		-2.697**	.866	1.154
	관람감상부분	-.092	.030	-.125		-3.038**	.565	1.771
	취미교양부분	-.187	.031	-.252		-6.003***	.549	1.822

R²=.657, Δ R²=.649, F=85.246***

***p<.001, **p<.01, *p<.05

t=-8.781, p<.001)에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 시간은 모든 여가활동 유형에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스포츠 부분(β =-.380, t=-10.745, p<.001), 놀이오락 부분(β =-.090, t=-2.697, p<.01), 관람감상 부분(β =-.125, t=-3.038, p<.01), 취

미교양 부분($\beta=-.252$, $t=-5.003$, $p<.001$)에 참여하는 시간이 12시간 미만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3. 중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교차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VI-9>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스포츠 부분($X^2=7.537$, $p<.001$), 관람감상 부분($X^2=7.450$, $p<.001$), 취미교양 부분($X^2=17.175$, $p<.001$)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포츠 부분, 관람감상 부분, 취미교양 부분에서 모두 12시간을 기준으로 1-6시간, 6-12시간까지의 응답 빈도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9> 중국 청소년 성별에 대한 유형별 여가활동 특성의 교차분석

여가활동 유형	참여시간	성별	
		남성(명, %)	여성(명, %)
스포츠 부분 $X^2=7.537(.000)$	1-6시간	73(36.5)	41(24.8)
	6-12시간	105(52.5)	96(58.2)
	12-18시간	18(9.0)	20(12.1)
	18시간 이상	4(2.0)	8(4.8)
놀이오락 부분 $X^2=1.739(.628)$	1-6시간	62(31.0)	57(34.5)
	6-12시간	80(40.0)	69(41.8)
	12-18시간	48(24.0)	34(20.6)
관람감상 부분 $X^2=7.450(.000)$	18시간 이상	10(5.0)	5(3.0)
	1-6시간	70(35.0)	42(25.5)
	6-12시간	84(42.0)	91(55.2)
취미교양 부분 $X^2=17.175(.000)$	12-18시간	42(21.0)	31(18.8)
	18시간 이상	4(2.0)	1(0.6)
	1-6시간	83(41.5)	36(21.8)
취미교양 부분 $X^2=17.175(.000)$	6-12시간	83(41.5)	93(56.4)
	12-18시간	31(15.5)	35(21.2)
	18시간 이상	3(1.5)	1(0.6)

*** $p<.001$, ** $p<.01$, * $p<.05$

다음으로, 학년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분석결과는 <표 VI-10>과 같다. 취미교양부분($X^2=14.466$, $p<.05$)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2시간을 기준으로 1-6시간, 6-12시간까지의 응답 빈도가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에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0> 중국 청소년 학년에 대한 유형별 여가활동 특성의 교차분석

여가활동 유형	참여시간	학년		
		1학년(명, %)	2학년(명, %)	3학년(명, %)
스포츠 부분 $X^2=3.097(.797)$	1-6시간	29(32.2)	40(30.0)	37(32.2)
	6-12시간	48(53.3)	90(56.3)	63(54.8)
	12-18시간	12(13.3)	15(9.4)	11(9.6)
	18시간 이상	1(1.1)	7(4.4)	4(3.5)
놀이오락 부분 $X^2=6.881(.332)$	1-6시간	27(30.0)	53(33.1)	39(33.9)
	6-12시간	36(40.0)	67(41.9)	46(40.0)
	12-18시간	20(22.2)	33(20.6)	29(25.2)
	18시간 이상	7(7.8)	7(4.4)	1(0.9)
관람감상 부분 $X^2=9.880(.130)$	1-6시간	21(23.3)	46(28.8)	45(39.1)
	6-12시간	44(48.9)	85(53.1)	46(40.0)
	12-18시간	24(26.7)	27(16.9)	22(19.1)
	18시간 이상	1(1.1)	2(1.3)	2(1.7)
취미교양 부분 $X^2=14.466(.025)$	1-6시간	18(20.0)	52(32.5)	49(42.6)
	6-12시간	48(53.3)	76(47.5)	52(45.2)
	12-18시간	23(25.6)	30(18.8)	13(11.3)
	18시간 이상	1(1.1)	2(1.3)	1(0.9)

*** $p<.001$, ** $p<.01$, * $p<.05$

다음으로, 일주일 참여횟수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VI-11>와 같다. 스포츠 부분($X^2=21.298$, $p<.05$), 관람감상 부분($X^2=23.795$, $p<.05$), 취미교양 부분($X^2=21.473$, $p<.05$)에서 일주일 참여횟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주일 참여 횟수가 4-5회를 기준으로 1-2회, 3-4회 이하일 경우 12시간 미만의 응답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 권유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VI-12>와 같다. 스포츠 부분($X^2=39.380$, $p<.001$), 놀이오락 부분($X^2=24.102$, $p<.001$), 관람감상 부분($X^2=10.185$, $p<.05$), 취

〈표 VI-11〉 중국 청소년 일주일 참여횟수에 대한 여가활동유형의 교차 분석

여가활동 유형	참여시간	일주일 참여횟수				
		1-2회 (명, %)	3-4회 (명, %)	4-5회 (명, %)	5-6회 (명, %)	7회 이상 (명, %)
스포츠 부분 $X^2=21.298(.046)$	1-6시간	73(36.5)	29(24.4)	6(26.1)	3(25.0)	3(27.3)
	6-12시간	105(52.5)	73(61.3)	11(47.8)	6(50.0)	6(54.5)
	12-18시간	18(9.0)	13(10.9)	4(17.4)	3(25.0)	0(0.0)
	18시간 이상	4(2.0)	4(3.4)	2(8.7)	0(0.0)	2(18.2)
놀이오락 부분 $X^2=12.327(.420)$	1-6시간	62(31.0)	39(32.8)	9(39.1)	6(50.0)	3(27.3)
	6-12시간	80(40.0)	48(40.3)	8(34.8)	5(41.7)	8(72.7)
	12-18시간	48(24.0)	29(24.4)	5(21.7)	0(0.0)	0(0.0)
	18시간 이상	10(5.0)	3(2.5)	1(4.3)	1(8.3)	0(0.0)
관람감상 부분 $X^2=23.795(.022)$	1-6시간	70(35.0)	22(18.5)	7(30.4)	8(66.7)	5(45.5)
	6-12시간	84(42.0)	71(59.7)	11(47.8)	3(25.0)	6(54.5)
	12-18시간	42(21.0)	25(21.0)	5(21.7)	1(8.3)	0(0.0)
	18시간 이상	4(2.0)	1(0.8)	0(0.0)	0(0.0)	0(0.0)
취미교양 부분 $X^2=21.473(.044)$	1-6시간	83(41.5)	26(21.8)	5(21.7)	2(16.7)	3(27.3)
	6-12시간	83(41.5)	66(55.5)	12(52.2)	7(58.3)	8(72.7)
	12-18시간	31(15.5)	26(21.8)	6(26.1)	3(25.0)	0(0.0)
	18시간 이상	3(1.5)	1(0.8)	0(0.0)	0(0.0)	0(0.0)

*** $p < .001$, ** $p < .01$, * $p < .05$

미교양 부분($X^2=15.370$, $p < .01$)에서 여가활동 권유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가활동 권유에 대한 유형이 자발적 여가활동이며 12시간 미만의 응답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여가활동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남성, 높은학력, 많은 참여횟

〈표 VI-12〉 중국 청소년의 여가활동 권유에 대한 여가활동 유형의 교차분석

여가활동 유형	참여시간	여가활동 권유	
		자발적	타인의 권유
스포츠 부분 X ² =39.380(.000)	1-6시간	95(40.3%)	19(14.7%)
	6-12시간	121(51.3%)	80(62.0%)
	12-18시간	19(8.1%)	19(14.7%)
	18시간 이상	1(0.4%)	11(8.5%)
놀이오락 부분 X ² =24.102(.000)	1-6시간	97(41.1%)	22(17.1%)
	6-12시간	84(35.6%)	65(50.4%)
	12-18시간	44(18.6%)	38(29.5%)
	18시간 이상	11(4.7%)	4(3.1%)
관람감상 부분 X ² =210.185(.017)	1-6시간	80(33.4%)	32(24.8%)
	6-12시간	117(49.6%)	58(45.0%)
	12-18시간	36(15.3%)	37(28.7%)
	18시간 이상	3(1.3%)	2(1.6%)
취미교양 부분 X ² =15.370(.002)	1-6시간	88(37.3%)	31(24.0%)
	6-12시간	115(48.7%)	61(47.3%)
	12-18시간	30(12.7%)	36(27.9%)
	18시간 이상	3(1.3%)	1(0.8%)

****p*<.001, ***p*<.01, **p*<.05

수, 자발적 참여활동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여가활동특성은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시간이 12시간 이상 많은 시간보다 12시간 미만의 참여시간이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 여가활동 유형이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5]와 일치함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의 여가활동참여가 청소년의 학업소진[4], 스트레스[18]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감소하여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을 향상 하기에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되었다.

둘째, 여가활동의 일반적 특성(여가활동참여횟수, 여가활동참여방식, 여가활동시간)과 여가활동유형이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서 먼저, 여가활동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4회 이하의 참여횟수, 12시간 미만의 참여시간, 자발적 참여는 자아존중감의 모든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활동유형에서는 성격적 자아와 교사자아에서 모든 활동유형이 영향을 미쳤으며, 학업 및 전반적 자아, 가정자아, 친구자아에서는 스포츠, 취미교양, 신체외모자아는 관람감상 제외한 모든 여가활동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을 높게 나타나는 여가유형으로 스포츠 참여 및 관람감상이 높다는 연구[5]와 자아존중감[7],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20]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여가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의미하며,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여가활동에 적극적 참여기회와 여유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여가활동유형에서 스포츠 자아는 자아존중감의 모든 변인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신체 움직임을 통한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스포츠 관련 여가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셋째, 중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먼저, 여가활동 유형별 차이에서 성별은 남성, 일주일 참여횟수에서는 스포츠, 관람감상, 취미교양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은 취미교양, 여가활동권유에서는 스포츠, 놀이오락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의 교차분석을 살펴본 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참여시간은 12시간 미만에서 남성과 여성, 모든 학년, 일주일 참여횟수 4회 이하, 여가활동권유의 자발적 참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과 중국 청소년의 연구대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둘째, 여가활동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 이외의 다양한 변인 관련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활동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별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청소년활동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다양한 청소년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중국 청소년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참여를 위한 관심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여가활동 참여는 스트레스 및 다양한 문제해결로 자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자원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장현민 (2016). 주말 여가프로그램이 특수학급 지적장애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Jang, HM. (2016). The Effects of Weeken Leisure Activities on the Self-esteem and Happines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laced at Special Education Classrooms, Chosun University, Gwangju, Republic of Korea)
2.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3. 차동혁, 옥선화 (2014).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자기조절능력, 학업성취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1), 353-378. (Cha, DH, Ok, SW(2014). The Effects of Adolescents'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on Self-regulation, Academic Achievements, and Self-esteem: Focusing on Fathers'Educational Level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1), 353-378)
4. 김정현, 마연연, 고민선, 정인경 (2013). 중국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소진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2), 129-146. (Kim. JH, Ma. YY. Go. MS. Jung. IK (2013). The effects of coping strategy on academic burnout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5(2), 129-146)
5. 오우섭 (2010).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Oh, WS. (2010). The Influence of the Types of Leisure Time Activities on Adolescents' Self-esteem and Happines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Seoul, Republic of Korea)
6. 손진희, 김지민 (2020).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71-94. (Son. JH, kim. JM. (2020). A Study on the Promotion of Youth Leisure Activities, The Journal of Korea Activity, 6(4), 71-94)
7. 지명원, 조태영(2012).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여가만족,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6(6), 145-165. (Chi, MW, CHO, TY. (2012). Adolescents' Leisure Activity on Leisur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6(6), 145-165)
8. 정무성, 김은아 (2013). 문화복지 참여에 따른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141-159. (Chung, MS, kim, EA. (2013). The Effect of Cultural and Social Capitals on the Quality of Life of Youth Focused on Participation on Cultural Welfare Program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 10(3), 141-159)
9. 정경숙 (2009).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학업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의 관계,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Jeong, KS. (2009). The Relationship among the Leisure Activities, Academic

Stress and Stress and Stress Coping of Adolescents, Sunchon Natinal University, Sunchon, Republic of Korea)

10. 왕방 (2013). 제한 중국 유학생의 여가만족,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Wang, F. (2013). The relationship among Leisur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Koream University Adjustments of Chinese Students, Hanseo University, Sesan Republic of Korea)
11. Kaplan, M. (1960). The Uses of Leisure,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2. Mckechine, G. E. (1974).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Leisure. Past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arch, 6, 27-45.
13. Ragheb, M. G. & Griffith C. A.(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r satisfaction of Older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14(4), 295-306)
14.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lf well-being. American Psycholdgist, (2), 117-124.
15. Coopersmith. S. (1982).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ies. Palo Alto. California: Scuebce and Behavior Books.
16.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7. 홍나미 (2015). 청소년 봉사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 문화포럼, 44, 157-180. (Hong. NM, (2015). The effects of youth volunteering on schol adjustment mediated by self-esteem and community spirit, Forum for youth, 44, 157-180))
18. 김수진 (2015). 청소년의 여가활동참여가 스트레스 해소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im. SJ, (2015). Effect of Leisure Participation of Adolescent to Stress Relief and School Adjustment,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Republic of Korea)
19. 김희화 (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Kim. HW, (1998). Development of Self-Esteem in Adolescence: It's Relation to Environmental Variables and Adjusment,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20. 최혜경 (2012). 청소년기의 여가활동, 자아 정체성, 삶의 만족도와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hoi. HY. (2012).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Self 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ce, Sejo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